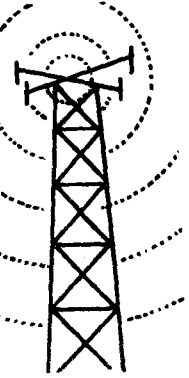


2월의 안테나



盧 永 翰

(대한양계협회 편집국장)

어린이에게 계란과 닭고기

1979년은 세계 아동(兒童)의 해로 정하였습니다. 어린이는 자라는 새싹이요, 앞으로 이나라의 주인이요, 나라의 보배임은 더 말할것도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어린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린이날을 공휴일로 까지 정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 윈스턴 처칠 수상은 국가의 장래를 위한 연설에서 “한 나라가 그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마음놓고 투자할수 있는 방법은 제 2 세 국민에게 우유를 먹여두는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너무도 평범하고 지당한 말입니다.

이제는 이말은 너무도 유명 하여져서 乳製品 가공업자의 판매촉진 방법으로 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초 처칠 수상의 참뜻은 어디까지나 비유로 말한것으로 우리는 너무도 글자 자구 해석에만 치우쳐 이 말에 담긴 참뜻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즉 한나라가 그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마음놓고 투자할수 있는 방법은 제 2 세 국민에게 닭고기, 계란 또는 축산물, 동물성 단백질 등 어린이가 자라는데 부족함이 없는 영양공급원으로 해석 되어져야 올바른 해석이 될것입니다.

처칠 수장도 이런 생각에서 다만 축산물의 대표인 우유로 표현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어린이가 이웃 일본 어린이 보다도 성장이 뒤떨어지고 있는 주요 원인이 발육기 어린이의 영양소 섭취량이 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발표를 본 바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점에 착안하여 학교급식을 제도화 하기에 까지 이른것 같



읍니다. 학교 급식의 필요성은 이제 다시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이 세계적인 추세인 것만 보아도 알수있습니다. 금년은 세계 아동의 해입니다.

우리도 국민소득 1,200\$의 상위 개발도상국대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린이에게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먹여야 하는가? 하는 선택의 문제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세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식성도 세살적입맛이 여든까지 가는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영양소의 질과양 어린이의 기호와 앞으로의 부존자원, 가격, 우리 국민의 식생활 방법과 기호를 앞으로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등을 충분히 검토되어 결정 되어져야 하겠읍니다.

다시 말해서 국내 자급이 어려워 수입에 의존하여야 할식품은 10년후 더욱더 풀키 현상만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세계 아동의 해를 맞이하여 가장 값싸고 기호성이 높으며 영양분이 골고루 많고 국내자급이 가능한 닭고기와 계란을 어린이에게 제공할 것을 추천합니다.

장관은 바뀌어도 공약은 이루어지길

77년 12월 22일 농수산부 장관에 이 회 일 청와대 경제담당 제1수석 비서관이 취임 하셨습니다.

새 장관님의 취임을 축하하며 유신 2기 농수산 정책이 당초계획대로 성공리에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과거 우리는 장관이 바뀔때 마다, 또는 담당관이 바뀔때 마다 정책이 바뀌어, 정부만 믿고 양축을 하는 축산인이 당황하는 경우가 있었읍니다.

현재 전국의 축산인은 78년 10월 26일 농수산부가 축산인에게 공약한 축산 정책이, 차질없이 수행 되기를 바라며, 78년 축산 진흥대회에서 국민에게 공약한 내용을 다시 한번 소개 합니다.

「본인은 이자리를 빌어 그동안 정부가 수립한 1991년 까지의 축산진흥 장기계획의 내용과 아울러 축산물 자급기반의 구축과 이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제2단계 방안의 강력한 추진에 대한 정부의 결의를 거듭 밝히고자 합니다.

대통령 각하께서 천명하신 바와같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대열에 올라설 대망의 1991년에는 우리 국민의 식생활도 선진국 수준에 달하여, 육류는 현재보다 3배 우유는 7배 계란은 2.6배나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를 자급하기 위해서는 소 4 백만두, 돼지 450만두, 닭 7 천4백만수를 보유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팽대한 규모의 가축증식을 위해 첫째 산지개발과 간척지개발을 통해 목장을 조성하고 암소증식단지 575 개소와 비육단지 952개소 양돈단지 8 백 개소등 총 2천 2 백 2 십 7 개소의 축산단지 와 5 천개소의 전업목장을 육성하여 이를 주력 축산계층으로 확보할 것입니다.

둘째 전국을 14개 낙농지대로 구분하여 150개소의 새마을 낙농단지를 조성하고 16만 5 천 마리의 젖소를 입식시켜 91년에는 총 86만두의 젖소를 보유토록 할 것이며

셋째 19억 6 천ha의 개량초지를 조성하고 11억 7 천ha의 담작 사료작물 재배를 통해 자급사료의 증산 활용을 적극지원하는 동시에 현재보다 4.4배로 늘어난 연간 1 천1백만MT의 배합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할 것이며 특히 종래의 초지 조성제도를 개선하여 초지조성이 보다 수월히 추진될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째로는 축산물 가격 안정대 제도의 확립과 정착을 통해 축산농민 여러분의 축산의욕을 뒷받침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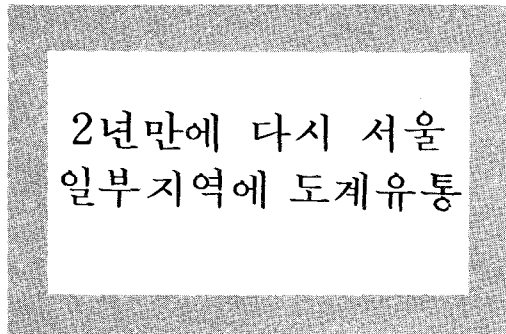
즉 축산물의 생산비와 적정이익을 보장하는 선에서 안정기준가격 하한선을 설정하여 그이하로 하락할 때에는 정부가 축산진흥 기금으로 수매 비축 하므로써 가격하락을 방지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안정을 감안한 상한 가격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할 때에는 비축 물량을 방출하여 가격을 안정시키므로써 가격진폭을 완화하여 건전한 축산경영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육류를 수입하여 판매할 때에는 앞서 말씀드린 하한 가격선을 충분히 유지할수 있는 선에서 가격을 결정 하므로써 국내 양축가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뿐 만 아니라 수입 육류의 판매수익은 전액 축산진흥기금으로 적립하여 국내축산 발전을 위한 지원 자금으로 활용할 것임을 이 기회에 재삼 강조해 두는바 입니다. 다섯째로 축산물의 유통혁신을 이룩하므로써 공정하고 신속하며 편리한 거래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함과 아울러 축산물의 유통업및 가공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에도 주력할 것입니다.

특히 가축시장을 350 개소로 정비하여 거래제도를 경매제로 전환 시키고 도축장도 148개소로 정비하여 차츰 공영화 하는 동시에 주요도시에 대규모 비축시설과 근대식 도매 시장을 설치 운영하고 아울러 대형 축산물 종합 판매장과 축산물 직매장 1800개소를 통해 규격화 및 포장 판매도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여섯째로는 가축개량 사업의 추진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및 도립 종축장의 규모 확대와 시설개선에 힘쓰고 가축의 능력검

정과 인공수정사업을 본격적으로 체계화하는 한편 가축보건 기구와 검역시설을 증설하고 축산단지 중심으로 진료센터를 설립 운영하며 시험연구와 지도사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시책의 수행을 위해서 기간중 연 2조 5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으로서 이중 1조 8천억원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축산업에 대한 세제 개선을 위해 종래의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면제와 감면기간의 연장 및 축산업 투자분에 대한 상속세의 감면 등 세제상의 혜택을 통해 축산 투자를 촉진하도록 계속 검토 발전시키고 또한 자금지원 방식도 과거의 품목별 지원에서 종합적 지원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신용대출 한도를 축산의 경우에는 대폭 증액시키는 등 융자제도의 개선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 정부의 公約이 空約이 되지 않을것을 바라며 이날 치사에서 金信 國회농수산위원장이 밝힌 바와 같이 경제적 예측은 그 나라의 자립을 불가능하게 하며 나아가서 외세 자본의 식민지화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식량(축산물)의 자급화가 절실히 요구 된다는 말씀은 지금 이시간에도 축산인 가슴에 살아 있습니다.



76년도에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7개도

시에서 실시하였던 도계 유통은, 서울지역에서 8. 3 사태등 많은 물의를 빚고, 그해 12월15일 국회에서 법시행이 보류되므로서 서울 지역에 한해서 그간 위생적인 도계 유통을 이루려던 꿈이 무산되고 말았다.

그후 축산물 가공처리법 개정안이 77. 12. 31 개정공포 되고 시행령과 적용지역 개정고시(78. 8. 5)로 서울시에 한하여는 2. 1 일부터 시행하되 적용지역등을 서울시장이 모든 형편에 따라 조절하여 시행할수 있게 되었다. 축산물 가공처리법 및 시행령 적용지역고시등에 대하여는 월간양계 78년 7월 (30p) 8월 (34p) 9월 (35p) 11월(43p) 에 설명 되었으므로 양계 업자들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2월1일부터 서울시에 어떻게 도계 유통이 시행될 것인가 만을 알아보기로 한다.

고시 내용과 닭고기 유통개선 계획

고 시

서울 특별시 고시 제 17호

수축(닭)의 적용지역 및 간이도계장 면적 결정 고시

농수산부 고시 제 3006호(78. 8. 5)에 의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수축(닭)에 대하여 축산물 가공 처리법의 적용 지역과 축산물 가공 처리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간이 도계장의 면적을 결정 고시 한다.

1979. 1. 16

서울특별시장

1. 수축(닭)의 적용지역

종로, 중구 및 아파트 지구(건설부 고시 제 131호(76, 8, 21) 및 제 169호(76, 10, 28)로 고시한 지구)

2. 간이 도계장 면적

7명 이상

닭고기 유통개선 계획

1. 목 적

- 가. 위생적 닭고기의 처리공급
- 나. 닭고기의 유통체계 확립으로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 다. 시장정비 및 환경위생 향상

2. 경위(근거)

- 가. 축산물 가공처리법 개정(1977. 12. 31)
 - 1) 고시지역 외에도 일반 도계장 설치 가능
 - 2) 자체 검사 제도화
 - 3) 고시 지역내 간이도계장 설치가능

4. 세부시행계획

(면적은 지방장관이 결정)

나. 수축의 적용지역 개정 고시(1978. 8. 5)

- 1) 서울특별시 1979. 2. 1 시행
- 2) 필요한 지역부터 점차 실시가능

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1978. 10. 30)

상업지역내에 간이 도계장 설치가능

3. 방 침

가. 적용지역

도심지역(종로 중구)와 A.P.T지역적용 도계처리능력 및 공급체제에 적합한 도심지와 A.P.T지역을 우선 적용 실시하고 처리능력에 맞추어 점차 확대 적용

나. 간이 도계장의 면적(7평이상)

시설기준에 적합한 최소시설이 가능한 영세업자의 부담력을 고려 7평 이상 으로 규제

方 針	細 部 計 劃	主 管 部 署
1. 실시시기	가. 시행일: 1979. 2. 1 나. 지도제용 1) 기간: 1979. 2. 1~1979. 4. 30(3개월간) 2) 지도사항 도계장 허가절차 적용지역내에서 밀도계품의 운반 저장 판매 조리행위 등의 금지 다. 지도단속 1979. 5. 1 부터 무허가 업소의 도계행위 미검사품의 사용 조리 판매행위	농 축 과
2. 간이도계장 허가	가. 지역 적용지역내의 상업지역 또는 기타 가능 지역 나. 건물용도: 도축장 또는 간이 도계장 다. 면적: 7평이상 라. 시설: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 마. 허가조건: 1) 3년간 기한부 1979. 2~1~82. 1. 31 2) 생계의 진열 판매금지 3) 서울특별시시장의 지시사항 준수	

2 月의 안테나

방 침	세 부 계 획	주요부서
3. 사후관리	가. 검사 1) 일반도계장 : 자체 검사원이 검사 2) 간이도계장 : 축산물 위생 검사소 검사원이 월 4회이상 수시 순회 검사	축산물위생 검 사 소
	나. 무허가 도계행위 1) 당해 물품 압수 폐기 2) 밀도계 행위자 고발	농 축 과
	다. 관허업소와 밀도계품의 취급 보관진열운반조리 및 판매 1) 당해 물품 압수 폐기 2) 고발 및 행정처분 처분기준(년기준) 1 회위반 : 영업정지 15日 2 회위반 : 영업정지 30日 3 회위반 : 허가취소	보건행정과
	라. 유허가 도계의 행정처분 기준 1) 허가조건위반 1 회위반 : 영업정지 15日 2 회위반 : 영업정지 30日 3 회위반 : 허가취소	농 축 과

건설부고시 제 131호 (76. 8. 21)

아파트지구 결정조서

<지구별>	<위 치>	<면적(m ²)>
잠실지구	(강 남 구) 신천동, 잠실동, 석촌동, 송파동, 풍납동 각 일부	2,458,000
반포지구	(강 남 구) 반포동, 잠원동, 서초동 각 일부	5,508,000
여의지구	(영등포구) 여의동일부	590,000
이촌지구	(용 산 구) 이촌동일부	160,000
압구정지구	(강 남 구) 압구정동일부	1,191,000
청담지구	(강 남 구) 청담동일부	367,000
도곡지구	(강 남 구) 도곡동일부	728,000
이수지구	(관 악 구) 동작동, 방배동 각일부	83,000
서빙고지구	(용 산 구) 서빙고동, 용산동, 이촌동 각 일부	814,000
화곡지구	(영등포구) 내발산동, 화곡동 일부	292,500
원효지구	(용 산 구) 원효로 4 가, 한강로 3가 각 일부	102,000
	건설부고시 제169호(76. 10. 28)	403,000
구의지구	(성 동 구) 구의동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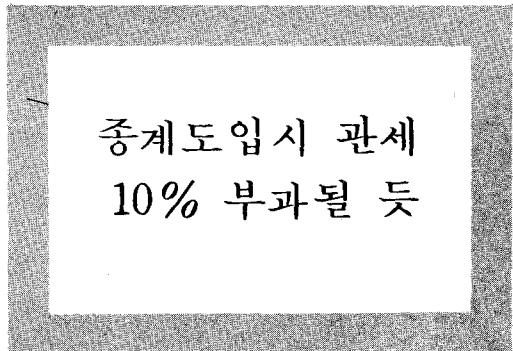


이번 서울시 고시를 보면 적용지역이 중구 종로구 및 아파트지구에만 한해서만 실시하게 되므로 닭고기 유통에는 아무 어려움이 없게 되었으며 그간 생산자가 우려하던 이법 시행으로 인한 물량체화도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법 시행의 목적이 위생적인 닭고기의 처리 공급과 유통체계 확립으로 생산자 소비자를 보호하고 서울시의 시장환경위생을 향상하는 것 외에도 연간 400억 이상에 이르는 양계산업의 질병으로 인한 손실을 막는데도 그 목적이 있으므로 서울시 당국은 중구 종로구 아파트지구에서 성공한후 바로 1개구씩 적용지역을 확대해나가야 될 것이다.

간이 도계장은 그 면적을 7평이상으로 정하고 상업지역 (시장내)에 한해 허가할수 있도록 되었다. 본지에서는 수차 간이도계장 허가에 대하여는 반대의 뜻을 표시 하였으며 지금은 어렵더라도 장기적 안목에서 일반 도계장으로 육성하여 주기를 바란다.

특히 금년 부터는 도계장에는 오물오수 처리시설을 의무화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공해 관계 법률) 알려지고 있어 3년 시한부인 간이도계장에 막대한 경비를 투자하여 공해 방지 시설을 하기도 어렵게 되었다.

서울시는 이번 법시행에 있어 4월30일까지를 지도계몽기간으로 정하고 5월1일부터 단속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으며 단속이 실시되는 5월 부터도 적용지역이 서울시의 극히 일부분 지역에 한정되었고 간이도계장에서 도계된 것은 검사표시가 없어 실제 단속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 된다.



정부에서 발표한 1979년도 관세율표를 보면 중계는 기본 관세율 20%이나 Gatt 협정 관세율에 의해 중계 도입 할때 1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소를 제외한 돼지의 경우도 기본 관세율 20%를 부과 하게 되어 있어 중돈을 수입 하려던 양돈가들이 수입 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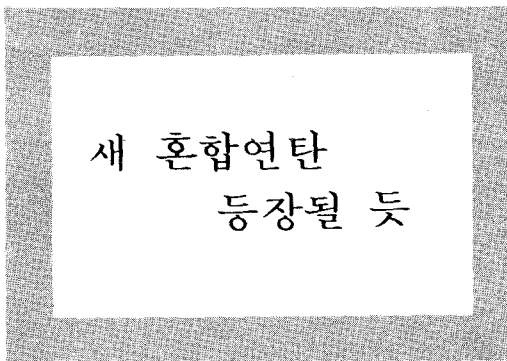
중축의 경우 지금까지는 축산진흥을 위해 중축도입이 불가피 하였고 영세한 축산업자의 우량중축 입식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 4 조의 2 (탄력 관세 제도의 운영)에 의거 無稅로 되어 있었다.

1월 18일 정부 발표에 의하면 물가 안정과 물자 수급을 위하여 주요 원자재 50여개 품목을 선정하여 기본관세율에서 최고 50% 포인트 까지 인하할 방침이며, 물가에 큰 영향을 줄 품목은 無稅 또는 5%의 저율로 관세 부처와 협의하여 조정키로 하였다고 한다. 종돈의 경우 돼지고기가 수입되고 있으며 그것도 시판 가격보다 비싸 축산진흥기금에서 차액을 보전하고 있는 때에 생산 원자재인 종돈에 2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적용되었던 탄력관세는 관세 부처 별로(농수산부) 품목을 선정 재무부와 협의한 뒤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되게 되어 있다.

또 정부는 수입 개방 정책에 따라 78년도 관세법 개정으로 평균 기본 관세율이 36%에서 25%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가금 사육용 기계 기구나 도계장 시설등 양계 산업에 필요한 부분은 조정되지 않았으며 다만 종계가 무세이던 것이 10%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었다.



최근 신문 보도를 보면 KIST는(고온공정연구실팀) 울산 엔지니어링(주)과 공동



으로 유연탄으로부터 가정용 연탄을 제조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열량이 높고 연소시간이 12시간이상 지속되는 연탄을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본회에서 조사한 1978년도 양계업에서 수도 광열비의 차지하는 비율이 산탄계의 경우 0.9% 브로일러 경우 3.1%로 되어 일견하여 그 비중이 낮은 것 같으나 광열비가 주로 육추시와 겨울철에 지출되므로 시기적으로 이때 연탄 파동이 난다든지 또는 저질탄으로 육추나 겨울철 보온관리에 겪은 어려움은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피부로 느끼기 어렵습니다.

무진장 매장된 듯한 무연탄이 벌써 외국에서 유연탄을 수입해 와야 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때 종래 연탄보다 우수한 연탄 개발은 양계업자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새로 개발된 연탄은 현재 사용되는 연탄이 (3.6kg) kg당 4,500~4,700 칼로리인데 비하여 kg당 5천 칼로리이며 불이 잘 붙고 연소가 균일하게 진행되어 종래의 연탄 처럼 타다 남은 부분이 줄어

드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유연탄은 세계적으로 매장량이 풍부하여 물량확보가 용이한 이점이 있어 빨리 실용화 되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선택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과 꼭 같게 인간을 만들고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셨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우리의 뜻에 의하여 선택할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처음 선택의 자유를 행사 한것은 마귀의 권유에 의하여 선악과를 따먹으므로써 삶과 죽음 중 죽음을 선택한 것이 시초였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후예인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선악과를 따먹는 쪽을 선택하므로써 잘못된 선택한것을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후 계속 받고있는 가정 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어음의 발행, 지급일의 선택, 병아리 사료 약품 판매등 모두가 선택의 연속인 우리 양계업계에서도 선택을 잘못하여 사업을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러한 선택 중에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업계지도자나 정부당국의 정책 결정의 경우등이 이에 해

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할 때 더욱 불행은 커집니다. 히틀러가 전쟁을 선택하고 유대인을 대량 학살하기로 한 경우는 많은 생명을 죽음을 선택하지 않을수 없게 한 예입니다. 우리 정부는 최고기를 수입하는 것을 선택하였고 78년에는 돼지고기도 양고기도 수입하는 쪽을 선택 하였습니다. 최근



◇ 바보의 고민 ◇

이 많은 사과중에 왜 하필
맨 꼭대기 것을 먹으라는지 몰라...

신문 보도를 보면 쇠고기등 국내 생산이 어려운것은 생산지원을 포기 하고 닭고기도 점차로 수입하는 쪽을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축산정책이 대가축 위주였고 78년 11월 축산진흥대회때 까지만 해도 금년에도 계속 쇠고기 증산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되었었습니다.

2개월의 시차를 두고 정부의 어느 친축이 잘못 선택한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정부의 잘못 선택으로 많은 국민이 당황하게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국민은 항상 정부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 되기를 바라며 정부역시 국민을 위하여 더욱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대개의 경우 업계와 정부의 충분한 대화를 선택하지 않을때 부작용이 있던 경우를 많이 보아왔으며 사건 속에서 발전하는 진리를 버리고 사건을 감추기 위하여 노력할때 더 큰 불행이 찾아오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 몇가지를 생각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선택하는 사람은 고매한 인격과 철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자기 개인이나 또는 특정인 특정계층을 위한 선택 보다는 공익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지금 당장은 괴롭더라도 후손을 위하여 선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노력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올바른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편견을 버리려고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째 큰것을 선택할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어야 하겠습니다. 심는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큰 것을 심어야 큰 것을 거둘 수 있습니다.

흔히 선택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책임

이 무서워 선택을 주저하거나 남에게 선택하여 줄것을 의뢰하는 지도자도 있습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제 우리나라 축산업은 진로를 선택하여야할 중요한 시점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앞에 어려운 난관이 있어도 올바른 지도자가 올바르게 선택하면 모든 어려운 문제는 저절로 해결 됩니다.

축산물을 수입에 의존하여야 하는가?

또는 지금은 좀 어렵더라도 국내에서 생산가능한 닭고기 수요를 대체하며 최대한 자급할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 생활에서 구출하기 위하여 홍해를 건너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불가능 하고 어려운 길로 선택하였으나 모세의 올바른 선택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우리 축산업계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우리 축산인을 애급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구출 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선택을 지연할 수는 없습니다. 생산기반이 다 무너져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면 그때는 벌써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인 잘못 생각으로 자살을 선택하므로써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를 봅니다. 축산업에서 생산을 포기하는 것은 인생에서 자살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고해라고 하여도 자살을 선택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아무리 축산업이 지금은 국제시세나 값이 비싸고 수익이 적어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먹음직스럽다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서 영원한 죽음의 길을 선택한 아담과 이브의 선택을 우리세대에 다시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더 추운 겨울이 오기전에 의무를 준비하기를 축산인은 바라고 있습니다.

사료구입난

최근 양축업자에 의하면 배합사료 구입이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작년 11월까지만 하여도 각사료공장에서 사료를 판매하기 위하여 양축가를 방문하였으나 최근에는 양축가의 사료주문에 응할수 없어 양축가를 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배합사료 생산량이 약20% 정도 증가되고 있다는 말을 들을때도 사료 가격 인상설에 따른 가수요로 가볍게 생각했던 업계에서도 79년에 들어서자 심각하게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특히 1월 말부터 2월초에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료 파동의 원인을 보면 당초 계획보다 배합사료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가축수수의 증가와 부로이러 체화에의해 출하되어야 할 닭들이 많은 사료를 소비하고 있기 때문이며,

옥수수 사용 비율이 높은 양계양돈 사료가 많이 소비되기 때문이고 옥수수 외에도 소맥분 수요는 일정한데 배합사료 생산량이 급증하므로 소맥피가 부족하고 미강기름 착유의 채산성이 악

화하여 탈지강 수급도 되지않아 강피류 부족현상이 더욱 심하고 배합사료 생산비 증가에 따라 사료공장의 채산성이 악화된 것도 사료부족의 한 원인이 되고있다. 종계 육계등의 열량수준이 높아졌고 값싼 강피류 사용량이 적어졌으며 톤당 180,000~190,000원 하는 국산 옥수수를 사료안정 기금에서 보상없이 사용케 하고, (외산 옥수수는 71,000~72,000원) 포장 지대도 30%이상 값이 올랐으며 그나마 구입도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79년 배합사료 수요량이 350만톤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어 이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물량이적었던 지금까지의 계획 통제 보다는 원료의 수입개방으로 능동적으로 수급계획을 수립하지 않을경우 사료 공급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가격의 통제를 받지 않고있는 계란이나 닭고기를 생산하는 양계사료의 가격을 통제 하는것은 아무의미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최근 경제기획원 발표를 보면 국제시세보다 1.5배 이상 높은 농축산물은 수입하는 정책으로 되어 있어 수입 옥수수 사료안정 기금을 첨부하는 것은 생산비를 높이는 결과가 되며, 현시점에서는 수입 최고기에서 적립되는 축산진흥기금으로 옥수수 가격을 인하하여 배합사료 가격인상 요인을 상쇄하여 국내 축산을 보호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하역능력 저장시설등과 사료원료 수급 방안을 재검토 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제 350만톤의 배합사료를 과거의 경험으로 수급을 하기에는 사료업계가 너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